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배포일시	2019. 6. 5.(수) / 총 3매(본문 2, 참고 1)	
	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엄정희, 사무관 김준성, 주무관 김형준 • ☎ (044) 201-3549, 3557, 3553 	
보도일시		2019년 6월 5일(수)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스마트 건설기술 새싹기업 지원센터 2단계 개소 입주기업 14→25개로 늘리고 시제품 제작→사업화 단계로 지원범위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6월 5일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새싹기업 창업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한 스마트건설 지원센터(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)의 2단계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 '18.9월 첫 개소한 이래 1단계로 14개 창업기업과 임직원 47명이 입주해 있으며,
 - 기업 추가입주를 위해 센터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단계 입주공간을 새로 마련하고, 6.5일부로 7개 새싹기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.
(연말까지 우수기업 공모를 통해 총 11개 기업 추가입주)
-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,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및 1·2단계 입주기업 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고, 개소식에 이어 입주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2단계 입주기업 확대를 계기로 입주기업 및 외부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
- 그간 1단계에서는 창업교육과 컨설팅,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새싹기업 간 공동연구,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책 위주였으나,

- 앞으로 2단계에는 개발한 기술·제품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실증사업과 벤처투자 매칭지원 등을 통해
 - 이른바, 새싹기업들이 “죽음의 벨리(계곡)”이라 불리는,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양산·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을 극복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지원해갈 계획이다.
 - 또한, 별도 센터건물을 신축하여 입주기업을 현재까지 계획된 2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.
-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“전국 250개 창업 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건설분야에 특화된 센터”임을 강조하며
- “1단계 입주 기업들 중 해외수출 계약, 투자유치, 국내 발주공사 기술적용 제안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망기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, 2단계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스마트 건설 분야 창업·혁신의 요람으로 키워나가겠다”는 포부를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스마트 건설기술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건설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, 우리나라에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《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1단계('18.9~'19.5) 주요 실적 》

- 기술개발 공동연구 : 7건(7개 기업, 연구비 총 5억원)
- 투자유치 : 3건(영국계 킹슬리벤처스 2억, 기술보증기금 2억 등)
- 해외 수출계약 : 1건(폐기물 이용 발전기술 : 태국기업과 계약)
- 현장 기술적용 제안 : 3건(3-D 지하 매설물 지도 구축기술 등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준성 사무관(☎ 044-201-35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1단계 지원 프로그램

- (사무실 공간 무상제공(기본 3년+ α (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장))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1~2 단계 입주공간 구축 완료(14개 기업 입주)
- (사업화 연구)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건설 (연) 보유 자원 활용 연구개발 및 시제품·시작품 제작 지원
 - 입주기업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공동연구: 총 7개社('19.4.~현재)
 - 입주기업 시제품·시작품 제작 지원 : 총 8개社('19.5.~현재)
- (공모전)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('18.11 스마트 건설기술·안전 대전)
- (컨설팅) 새싹기업-건설연 연구진간 1:1 멘토링(기술지원) 및 기업 진단 컨설팅(성장단계별 기업상태 진단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 등)

□ 2단계 이후 추가된 지원 프로그램(금년말까지 10개 기업 추가입주 예정)

- (투자연계/판로개척) 투자매칭, 사업연계 등 기업성장 기회 제공
 - 센터 자체 IR(투자설명회) 개최를 통한 벤처투자(산업은행, 과학기술지주, 기술보증기금, 벤처투자사 등) 매칭 및 연계
 - 공공기관 및 시공사 대상 새싹기업 보유 아이템의 연계·지원
- (현장적용/실증) 새싹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현장적용/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등(건설기술연구원 연천 실증사업단지 활용)
- (맞춤형 교육) 새싹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교육(새싹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투자설명회 전략 등 포함)
- (전용건물 구축) 새싹기업 추가입주를 위한 전용건물(약 25개 기업 추가 수용 가능) 구축 검토 중('20년 예산편성 협의 중)